

# “장밋빛 황금기 선보이겠다”

## 워너원, 스페셜 앨범 '1÷x=1' 발매...14개 도시 월드투어

“지난 앨범에서는 올해를 워너원과 워너블(팬클럽)의 ‘골든 에이지’(황금기)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번에는 ‘장밋빛 황금기’를 선보이겠습니다.” (박우진)

11인조 그룹 워너원이 3일 오후 3시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 다이아몬드 클럽에서 스페셜 앨범 '1÷x=1'(UNDIVIDED) 발매를 앞두고 당찬 각오를 밝혔다.

박우진은 새 앨범과 관련해 이같이 약속하면서 “워너원의 한계를 보여주고 싶다. 끝없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국민적인 사랑을 받은 앨범 ‘프로듀스 101’ 시즌2를 통해 결성된 이들은 솔한 기록을 내며 지난 2일 데뷔 300일을 맞았다.

지난 3월 앨범 때 ‘올해를 워너원의 골든 에이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이들은 실제 이 앨범으로 선주문량 70만장

을 기록하고 타이틀곡 ‘부메랑’으로 음악 방송 10관왕을 달성하는 황금기를 보였다.

이번에는 4일 신보 발매를 앞두고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고척스카이돔에서 첫 월드투어 ‘원:더 월드’(ONE:THE WORLD)의 포문을 열었다.

강다니엘은 “‘달려간다’는 메시지가 담긴 새 앨범 타이틀곡 ‘켜줘’가 월드투어 주제가라고 생각한다”며 “전 세계 워너블을 향해 달려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1÷x=1'(UNDIVIDED)는 데뷔 앨범 '1X1=1'(TO BE ONE)을 시작으로 '1-1=0'(NOTHING WITHOUT YOU), '0+1=1'(I PROMISE YOU)에 이어 선보이는 연산 시리즈 앨범이다.

타이틀곡을 제외하고 모두 유닛 곡으로 구성했다는 점이 특징으로, 유닛(÷)으로 보일 워너원의 다양한 매력과 무한한 가능성(x)이 하나(1)일 때 더

욱 빛난다는 뜻이 담겼다.

‘트리플 포지션’(김재환, 강다니엘, 박우진), ‘린온미’(윤지성, 하성운, 황민현), ‘더힐’(홍성우, 이대휘), ‘남바완’(박지훈, 배진영, 라이관린) 등 각 유닛은 지코, 널, 헤이즈, 다이나믹 듀오 등 선배 가수들과 손잡고 곡 작업을 했다.

강다니엘은 지코와 작업한 곡 ‘갱거루’에 대해 “일상에서 지칠 때 탈출구를 향해 신나게 놀아보고 싶다는 메시지가 담겼다”며 “지코 형이 ‘넌 에너지가 넘쳐서 조절이 안 될 때가 있지 않냐’라고 해 제가 평소 좋아하는 ‘오버페이스’란 단어를 가사에 담았다”고 소개했다.

또 다이나믹 듀오와 ‘11’을 함께 작업한 박지훈은 “우리가 팀에서 어린 나이를 맡고 있어서 좀 더 진정된 남자로 거듭나는 스토리를 표현해 봤다”고 덧붙였다.

유닛곡이 다수 생기기 보니 월드투어는 구성이 한층 다채로워졌다.

윤지성은 “그간 팬콘, 쇼콘에서 못 보여준 유닛 무대나 개인별 솔로 퍼포먼스가 있다”며 “열심히 준비한 모습을 팬들에게 보여드리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쉬 없이 달린 이들은 3개월간 14개 도시에서 총 20회 공연을 펼치는 월드투어의 꿈을 이루게 됐다. 3일간 열린 서울 공연에는 총 6만 관객이 모였다.

하성운은 “신인인데 14개 도시를 가게 돼 영광”이라며 “많은 해외 팬을 만날 수 있게 돼 설렌다”고 기대했다.

배진영도 “월드투어는 꼭 하고 싶은 무대여서 영광”이라며 “워너블 앞에서 무대를 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덧붙혔다.

멤버들은 또 앞서 불거진 논란과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하성운은 지난 3월 생방송 중 발언으로 인한 논란에 대해 “많은 분에게 심려를 끼친 것 같아 죄송하다”며 “앞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올해 12월 활동이 종료되지만 최근 소속사가 바뀐 데 대해 윤지성은 “남은 앨범과 월드투어가 남아있어서 우리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줄 회사를 설립했다”며 “계약 연장도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다. 현재 하는 일에 열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공연에서 귀를 다친 배진영은

“평소 무대를 중요시해 속상했고, 워너블에게도 죄송했다”며 “가족들이 와 계셔서 걱정할 것 같아 그런 마음에 눈물이 난 것 같다. 눈물을 보여 부끄럽고 창피하다. 오늘 컨디션은 너무 괜찮다”고 웃어보였다.

매 앨범 사회 공헌 활동을 진행한 워너원은 이번에는 한국심장재단과 함께 심장병 환우들을 위한 사회 공헌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연남뉴스

## 더 커진 웃음과 에너지 ‘탐정: 리턴즈’

### 환상의 콤비 권상우·성동일, 이광수 합류 기대감 ↑

‘탐정:더비기닝’(2015)이 ‘탐정:리턴즈’로 관객들을 다시 찾아온다. 전작의 웃음과 에너지를 능가하는 코믹 추리극이다.

설목 흠즈에 푹 빠진 만화방 주인 ‘강대만’(권상우)과 광역수사대의 전설적인 형사 ‘노태수’(성동일)는 전작에서 비공식 탐정으로 티격태격하며 환상의 콤비를 보여줬다. 이번 작품에서 두 사람은 드디어 탐정사무소를 개업하고 ‘공식’ 탐정이 된다.

의욕 과다증인 추리광 ‘강대만’이 미궁에 빠진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증을 높여준다. 카리스마 넘치는 ‘노태

수’는 탐정으로서 어떤 뛰어난 기량을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여기에 전직 사이버수사대 에이스였으나 지금은 사이버홍신소를 운영하며 불법 전문 탐정으로 일하는 ‘여치’(이광수)가 합류해 의외의 천재성을 발휘한다.

권상우는 “전편보다 웃음, 사건, 배우 등 모든 게 더 커지고 강해졌다. ‘007’ 시리즈처럼 건강이 허락되는 한 계속 ‘탐정’을 찍고 싶다”고 말해 울려 퍼질 관객들을 사로잡을 한국형 시리즈물의 탄생을 기대케 한다.

오는 13일 개봉.



## ‘더 스토리 오브 라이트 에피소드2’ 공개

### 오는 11일 사이니 정규 6집 두 번째 앨범 발표

그룹 사이니가 정규 6집 두 번째 앨범 ‘더 스토리 오브 라이트 에피소드2’(The Story of Light EP.2)를 11일 공개한다.

4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정규 6집은 각기 다른 신곡 5곡씩을 채운 총 3개 앨범으로 구성됐다.

지난달 28일 ‘데리러가’를 타이틀곡으로 한 첫 번째 앨범을 냈으며, 두 번째 앨범의 타이틀곡은 ‘아이 원트 유’(I WANT YOU)다. 세 번째 앨범은 25일 공개된다.

신곡 ‘아이 원트 유’는 청량하면서도 아련한 감성이 돋보이는 트로피컬 하우스 기반 팝 장르다. 온유는 “강렬한 베이스와 멜로디가 가미된 중독성 있는 후크와 시원한 사운드가 매력적”이라고 설명했다. 민호는 “뜨거운 여름에 듣기 좋은

시원한 사운드가 인상적이다. 여러분께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편안한 음악으로 돌아왔으니 기대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사이니는 첫 번째 앨범 ‘더 스토리 오브 라이트 에피소드1’으로 37개 지역 아이튠스 1위를 차지했다. ‘데리러가’ 무대는 현대무용을 연상시키는 독창적인 안무로 K팝 수준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8년 ‘누난 너무 예뻐’로 데뷔한 사이니는 ‘산소같은 너’, ‘졸리엣’, ‘링딩동’(Ring Ding Dong), ‘루시퍼’(Lucifer), ‘셜록’, ‘드림 걸’(Dream Girl) 등의 히트곡을 내며 대표적인 K팝 그룹으로 활약했다. 또 멤버들은 솔로 가수로 나서는가 하면 영화, 드라마, 연극, 뮤지컬, 예능 등 다방면에서 활약했다.



송은이

정형돈

## 개가수 송은이-정형돈 프로듀서 변신

### 웹 음악 예능 동반 출연...협업 아티스트 이달 공개

‘판 갈아주는 여자’ 개그우먼 송은이(45)와 개그맨 정형돈(40)이 새로운 웹 음악 예능 ‘스트리밍-개가수 프로듀서’에서 음악 프로듀서로 변신한다.

두 사람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송은이와 정형돈은 6월 네이버TV와 VLIVE(V앱)를 통해 공개되는 웹 음악 예능 프로그램 ‘스트리밍-개가수 프로듀서’에 동반 출연한다”며 “연예계 대표 개가수(개그맨+가수)인 두 사람이 이번 프로그램에서 음원 기획부터 공개까지 프로듀서로 직접 참여한다”고 4일 밝혔다.

송은이는 최근 개그우먼 프로젝트 걸

그룹 ‘셀럽파이브’를 기획하고 활동하며 전성기를 맞았다. 특히 판을 짜고, 프로그램 구성하는 등 기획자의 능력이 돋보이는 콘텐츠 프로듀서로 평가받는다.

아이들은 물론, 다양한 뮤지션과의 협업을 통해 음악에 대한 남다른 감각을 보인 정형돈은 ‘형돈이와 대준이’로 활약하며 허를 찌르는 독특한 가사와 음악으로 인기 음원을 탄생시킨 바 있다.

제작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 프로그램 기획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두 사람의 자존심을 건 음원 배틀과 더불어 협업할 아티스트는 이달 중 공개된다.



지난해 우승을 차지한 송원초 합창단.

## 8일까지 참가 접수

중국 현대음악의 대부 정율성 선생을 기리는 ‘제5회 광주MBC 정율성동요경연대회’가 오는 7월 20일 광주MBC 공개홀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광주·전남지역 소재 초등학교 합창단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정율성 동요와 자유곡을 한 곡씩 준비하면 된다. 지휘자와 반주자를 별도로, 30명 이상 4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된 합창단은 참가신청서 및 참가 노래 중 1곡을 선택해 3분 이내의 동영상 필수로 첨부해야 한다. 접수는 오는 8일까지며, 15일 광주MBC 홈페이지를 통해

대회 참가 탐을 공지할 예정이다.

수상 팀에게는 ‘정율성 친선대사상’을 시상하며 오는 9월 중국 절강성 교류 공연 및 현지 학교 참관 등의 기회 제공을 통해 음악과 어린이를 통한 한중 문화교류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율성 선생은 1914년 광주 양림동에서 태어나 중국 남경으로 건너간 뒤, ‘연안송가’, ‘팔로군행진곡’ 등 360여 곡의 작품을 남겼다.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항일독립운동을 하며 국가의 자존과 민족의 얼을 되찾고자 노력한 광주가 낳은 시대의 선각자로 평을 받고 있다.

문의 062-360-2125. /이보람 기자

## ‘스넥컬처’ 웹드라마의 진화

### 신인배우·연기들 등용문·홍보수단 최적화

단순 ‘스넥컬처’로만 생각한 웹드라마가 진화하고 있다.

조회 수가 수천만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끌기도 하고 신인배우가 이름을 알리거나 알리는 등용문이 되기도 한다.

◇ 모바일 환경 최적화 콘텐츠...웹 드라마 붐물

웹드라마란 분량은 10분 남짓하고, 시간과 장소와 관계없이 시청 가능해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콘텐츠다.

전편이 10회 내외의 시리즈로 제작되기 때문에 한 편을 보기 위해 1시간 넘게 TV 앞에 앉아야 하는 일반 드라마와는 달리 이동하면서도 보고 1시간 이면 전편을 다 감상할 수도 있다.

소비가 빠르고 쉽다 보니 확산도 빨라 최근 몇 년 동안 수많은 콘텐츠가 생산됐다.

그중 대표작은 ‘연애플레이리스트’(연플리), ‘풍당풍당 러브’, ‘오구실’ 등이다

정준 로맨스를 그린 ‘연플리’는 글



웹 드라마 ‘풍당풍당 LOVE’

로벌 조회 수 3억 뷰를 넘었을 정도로 웹드라마의 효시로 불리는 작품이다.

30대 싱글 여성의 삶을 다룬 ‘오구실’도 누적 조회 수 1,500만 건을 기록했다.

‘풍당풍당 러브’는 약 3개월 만에 조회 수 1,000만을 돌파했으며 MBC

TV에서 2편짜리 드라마로 방송됐다.

웹드라마 시장이 커지자 MBC에브 리얼, SBS플러스미디어, CJ E&M 뿐만 아니라 지상파 3사도 이미 뛰어들었고 아이돌 스타가 소속된 가요기획사 등 연예기획사들도 웹드라마를 만들고 있다.

◇ 신인배우·연기들 등용문...효과적인 홍보 수단 되기도

웹드라마는 일반 TV 드라마와 달리 시청률에 구애받지 않고 진입장벽이 낮아 신인배우나 연기에 도전하는 아이돌 배우의 등용문이 된다.

또, 아이돌 출연이 쉬워 홍보 효과가 크고 제작비도 적다 보니 정부 기관이나 기업이 웹드라마를 통한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삼성은 기업 홍보를 통해 EXO의 도경수가 출연한 웹드라마 ‘공정이 체질’을 제작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영화 제작의 꿈을 이루기 위해 긍정적인 태도로 도전하는 대학생들의 좌충우돌 이야기를 담은 이 웹드라마는 당시 사상 최단 기간 조회 수 2,000만 뷰를 돌파하기도 했다.

한 기획사 관계자는 “웹드라마는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이기 때문에 아이돌을 섭외하는 경향이 있다”며 “해외에서도 볼 수 있으므로 아이돌이 출연하면 뷰수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전했다.